SIMPLE & COMPACT

# SIMPAC

새로운 도약의 15년을 준비합니다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글로벌 프레스 메이커**
- 중소형, 대형 프레스 제조

**SIMPAC 인더스트리**

**고품질의 주조주물 선도기업**
- 산업기계, 감속기 및 부품 생산

**SIMPAC 산기**

**No.1 기술력의 타이어 제조설비 전문 기업**
- 가류기, 성형기, 재단기 등 제작

**SIMPAC 메탈로이**

**국내최초 합금철 개발/생산 기업**
-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생산
- 고분자 화학사업

**SIMPAC 메탈**

**고부가가치 합금철 생산기지**
- 고품질, 고부가의 중저탄소 페로망간 생산

SIMPAC Group




# SIMPAC STORY

2016
SUMMER
VOL.35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SIMPAC

SIMPAC
STORY

2016 SUMMER VOL.35

## SPECIAL THEME


**04** SIMPAC 테마A컷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06** SIMPAC News
SIMPAC 소식

**09** SIMPAC 메시지
SIMPAC, 노력의 역사

**12**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SIMPAC메탈로이 전기로D조

**18** 기획칼럼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의 진실


## ENJOY SIMPAC


**22** SIMPAC Highlight
Thanks to 필정장학재단

**25** SIMPAC 데이터
나를 발전시키는 힘, 자기계발

**28** With Us
2016 호프데이

**32** SIMPAC人의 여름나들이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두현 사원

**36**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슈퍼맨 아빠들의 고군분투 육아일기

**40** 환영합니다
SIMPAC의 새로운 얼굴들

**44** 개인폴더
영화 <마션(MARTIAN)>

**46** 편지 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편지

**48**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49**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04** SIMPAC 테마A컷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32** SIMPAC人의 여름나들이

**36**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 STORY
2016년 SUMMER
통권 35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6년 8월 22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IR큐더스
02-6011-2000
편집 및 디자인 ㈜IR큐더스
02-6011-2000
인쇄 삼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이웅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손인성 사원
032-590-2023
isson@simpac.co.kr

㈜SIMPAC
김선일 사원
032-510-0024
silkim@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SIMPAC산기
김현수 과장
062-717-7214
kimhs@simpac.co.kr

㈜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2
jklee@simpac.co.kr

# 노력은
# 배신하지 않는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달리기' 라는 노래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곡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때론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끝없이 달려온 길에 남겨진 고통과
외로운 싸움을 이겨낸 당신의 모습은
한층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 SIMPAC NEWS

## SIMPAC

### LG전자 트윈스 클럽, (주)SIMPAC 공장 벤치마킹 위해 본사 방문해

5월 18일, 부평에 위치한 (주)SIMPAC 본사에는 프레스 제조사 벤치마킹을 위해 직접 공장으로 방문한 LG전자 트윈스 클럽(LG전자의 협력사 조직) 70여명 인원들로 가득했다. 트윈스클럽은 금형, 프레스, 회로소재, 모듈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 있는 협력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번 LG전자 트윈스클럽의 견학은 국내 프레스업계 선두주자로 자리하고 있는 SIMPAC의 기술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주)SIMPAC 견학 일정은 프레스와 관련된 기본교육과 실제 프레스가 제조되는 공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짧은 탐방 일정이지만 프레스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트윈스클럽 참석자들이 만족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의 협력사들의 SIMPAC 본사 방문은 그만큼 SIMPAC의 역량이 동종업계 최고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SIMPAC의 우수한 기술력과 국내 시장에서의 굳건한 입지를 재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 SIMPAC 신규입사자 계열사 투어 진행

(주)SIMPAC은 지난 7월 15~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주)SIMPAC의 신규입사자들은 함께 계열사인 SIMPAC메탈(충남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438)과 SIMPAC메탈로이(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153 및 서원재로 22)를 방문해 그룹의 힘찬 내일을 향한 포부를 다졌다.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7월 11일 입사한 9명, 상반기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한 3명과 함께한 이번 투어는 각 계열사 실무자들의 협조 속에서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들은 투어 중간중간 인솔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메모를 하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시종일관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아 이를 지켜보는 선배 사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기도 하였다. 지난 5월 SIMPAC의 일원이 된 박정환(생산팀, 26세)씨는 "이번 투어를 통해 그룹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SIMPAC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SIMPAC 메탈로이

### SIMPAC메탈로이 광양공장 개소식

지난 5월 25일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서 SIMPAC 메탈로이 광양공장 개소식이 있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2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6,180.9㎡에 지상2층 사무동(625.01㎡) 1개동, 공장동(1,668㎡) 1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ROLL가공에 필요한 설비와 합금철 저장을 위한 창고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최대 고객사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합금철과 ROLL 가공이 가능한 당사의 광양공장 개소식은 포스코 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최진식 회장은 광양공장의 힘찬 새출발을 외치며, 우리 SIMPAC메탈로이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덕담을 전하였다.

### SIMPAC메탈로이&SIMPAC메탈 상반기 임원 · 부서장 워크샵 실시

지난 7월 1일 SIMPAC메탈로이 강당에서 SIMPAC메탈로이, SIMPAC메탈 임원 · 부서장이 모여 상반기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침체된 경기, 제품 단가 하락, 전기요금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악재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를 실적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정리 및 평가하고 남은 하반기 생존과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상반기에 보여준 희망을 바탕으로 하반기 더욱 상승하는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이 되어주길 바라는 메시지로 이날 워크샵을 마무리 하였다.

### 제20회 포항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참가

지난 7월 2일 토요일 양덕구장에서 개최된 '포항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에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소 풋살과 축구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 모여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포항시 관내 관공서, 회사 등 24개 팀이 참가하는 포항시 직장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었다. 우리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은 비록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푸른 구장에서 마치 선수가 된 것처럼 열심히 땀 흘리며 경기에 임하였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업무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축구로 하나 된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고 이제 정기적인 연습 스케줄을 잡아 발을 맞춰 가을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자고 외쳤다.

# SIMPAC, 노력의 역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 SIMPAC의 짧지만 굵은 역사를 대변하는 문구입니다.
SIMPAC은 지난 15년 동안 남들이 보지 못한 희망을 미래로 바꾸며 성장해왔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에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불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황무지를 개척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기업 SIMPAC.
이번 SIMPAC STORY 여름호에서는 SIMPAC이 일구어 낸 15년 노력의 산실을 알아보겠습니다.

### SIMPAC의 이름으로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열다

IMF로 위기를 맞은 쌍용정공을 인수하여 새롭게 모습을 탈바꿈한 (주)SIMPAC은 SIMPAC그룹 역사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주)SIMPAC은 기계식프레스, 서보프레스, 유압식프레스, 자동화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 후 다음해인 2002년에는 1,000만불 수출을 실현, 2009년에는 5,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프레스 전문제작업체로 고속 성장하였습니다. 계속된 회사의 성장과 수주물량 증가에 발맞춰 2010년 복지사무동, 2011년 공장동을 새롭게 준공하였습니다. SIMPAC의 노력과 실력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2010년 세계공작기계매출 100대 기업 선정, 2013년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지정 등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주)SIMPAC 공장동

▲(주)SIMPAC 복지사무동

(주)SIMPAC에 이어 SIMPAC그룹으로 합류한 SIMPAC이엔지는 그룹 내 가공 유통 비용을 줄이고 원자재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IMPAC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유통물량과 계열사 공급품의 품질 향상, 납기관리를 위하여 용단설비 증설을 계획, 2007년 8월 말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1호 입주기업으로 연면적 22,300m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연 30,000톤에 이르는 철강구조물 생산능력을 갖춰 원재료 수급부터 가공이 완료된 철강구조물 제조까지 이어지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IMPAC이엔지 인천검단산업단지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SIMPAC은 고객만족 극대화와 사업 분야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0년에는 여의도에 위치한 SIMPAC홀딩스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국내 대표 주조 및 산업기계 메이커 SIMPAC인더스트리, 2015년에는 타이어 제조설비 전문 메이커 SIMPAC산기를 잇달아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합류로 SIMPAC은 프레스와 합금철을 넘어 주조/타이어제조설비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SIMPAC의 경영목표인 고객 만족을 1부터 100까지 채워줄 수 있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현재의 안일한 성과보다 내일의 밝은 성공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SIMPAC. 남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노력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고객 만족을 위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다

국내 최초 합금철 생산기업인 SIMPAC메탈로이는 2006년 SIMPAC ANC라는 사명으로 그룹에 합류하게 됩니다. 법정관리 중이던 SIMPAC메탈로이는 그룹 합류 후 고속성장에 힘입어 2008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시장 확대 전략에 맞춰 SIMPAC메탈로이로 사명을 변경하고 당진 소재의 SIMPAC메탈 공장을 설립하여 명실공히 종합 합금철 메이커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SIMPAC메탈로이 사무동

▲SIMPAC메탈 당진공장

▲SIMPAC메탈 당진공장

▲여의도 SIMPAC홀딩스

▲SIMPAC인더스트리 전경

▲SIMPAC산기 전경

# 어제의 땀방울이 오늘의 우리를 오늘의 땀방울이 내일의 SIMPAC을 만든다

## SIMPAC메탈로이 전기로D조

세계적인 철강 시황 악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활로 모색에 힘 쏟아온 SIMPAC메탈로이. 이곳에는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현장과 그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365일 24시간을 땀과 굳은살로 채워가고 있는 전기로D조를 소개한다.

#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SIMPAC메탈로이 전기로D조

## 회사 내에서 전기로D조는 어떤 팀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안종순 주임>** SIMPAC메탈로이는 전기로에 망간과 부원료 등을 투입해 합금철을 제조하는 국내 최초 합금철 개발·생산기업입니다. 전기로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돼야 해서 4개 조가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중 전기로D조는 원료 계량, 투입, 전기로 운영, 출탕과 후처리 등의 전 작업에서 모범이 되는 팀이에요. 10명의 팀원이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작업에 완벽함을 기하고 있는, 최고의 팀이라 자신합니다. 현장의 환경개선과 의식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한 QSS 활동도 잘 수행 중이고요.

## 모범적인 부서,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성민 사원>** 일 년에 1회 정도 팀별 인원편성을 재배치하는데요. 전기로D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만큼의 합이 매일 쌓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팀으로도 가까운 사이가 됐죠. 흔한 말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라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할까요.

**황상용 반장>** 젊은 팀원이 많아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요. 윷놀이나 볼링 같은 운동도 자주 하고요. 술자리에서 속마음도 나누다 보니 놀 때도 일할 때도 척척 잘 뭉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니 평가가 좋은 건 당연한 일이죠.

## 전기로D조에서는 구성원의 자질 중 무엇을 일 순위로 꼽나요?

**정진교 사원>** 작업능력도 필요하지만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은 배움과 시간을 통해 나아질 수 있지만 인사성이나 선후배를 대하는 마음, 문제를 찾아 조율하는 태도를 고치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만 잘해서는 공동 작업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여영수 사원>** 현장에서는 성실함 없이 버티기 힘들죠. 합금철이 생산되기까지 전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대충 일하면 바로 품질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루를 성실히 보내면 고된 중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으로 내일 다시 일할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김종수 사원>** 긍정적인 태도를 꼽고 싶네요. 어떤 직종이든 출근과 함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힘에 부치는 순간을 경험하기 마련이잖아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웃으면서 고비를 넘기는 게 낫죠. 그래서 힘에 부치는 일을 할 때면 돈 주고도 운동하는데, 일하면서 운동도 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해요. 내가 웃으면 동료들도 웃습니다.

## 그 말대로 10명의 팀원 모두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윤석훈 사원>** 저를 빼고는 다들 전기로D조를 충분히 빛내고 있어요. 특히 한 파트는 아니지만, 형처럼 잘 챙겨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정진교 사원이 든든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을 두루 살피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이경호 사원>** 윤석훈 사원이야말로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총무 역할도 야무지게 해내고 있거든요. 동료들에게 먹인다고 과일을 일일이 씻어서 가지런히 담아오는 걸 보면 어찌나 꼼꼼하고 자상한지 모르겠어요.

**김철수 사원>**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이경호 사원 덕분에 자주 웃어요. 분명 고단할 텐데도 인상을 찌푸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윷놀이에서 보여준 그 뒤구르기 실력을 계속 발휘해줬으면 합니다.(웃음)

SIMPAC메탈로이 전기로D조에 묻다.

# ‘당신에게 노력이란?’

**정진교 사원**

“노력이란 자양강장제”

쉼 없는 노력으로 모두가 찾는
자양강장제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윤석훈 사원**

“노력이란 행복”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자식들도
그 노력을 배우게 된다.

**안종순 주임**

“노력이란
자기 마음의 떳떳함”

노력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 있다.

**황상용 반장**

“노력이란 굳은살”

훈장 같은 굳은살이 늘어나야
잘 익은 열매를 얻는다.

**이성길 선임**

“노력이란 나의 인생”

성실히 위아래를 다독이는 노력을
통해 내 인생을 보여주고 싶다.

**김철수 사원**

“노력은 나아지는 것”

품질을 높여 회사를
탄탄히 하는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다.

**김성민 사원**

“노력이란 지금 해야 할 일”

나태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

**여영수 사원**

“노력이란 성취”

목적한 바를 이루고 싶다면
나의 노력만이 답이다.

**김종수 사원**

“노력이란 꿈”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경호 사원**

“노력이란 좋은 결과”

노력 없이는 성과를 얻을 수 없으니
실패했대도 다시 노력하자.

**이성길 선임>** 이 자리를 빌려 김철수 사원에게 잔소리 좀 할게요. 선배라는 이유로 뭐든 혼자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맡은 파트가 기초적인 분야라 혼자서 공장 전체를 돌며 동분서주하는데, 이제 후배들과 짐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안종순 주임>** 에이, 선임님이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죠. 늘 앞장서서 일하고 뒤처리까지 챙기느라 바쁘시잖아요. 게다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고 따라주시고, 우리 팀 최고 연장자로서 친목모임에도 적극 동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수 사원>** 주임님도 고맙고 감사한 리더에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이 멋집니다. 주임님을 따라 팀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친구 같고 동료 같은 리더의 모습을 오래 보여주세요.

**김성민 사원>** 김종수 사원도 배울 게 많은 동료에요. 일도 잘하지만, 다른 조에서 온 저를 살뜰히 챙겨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일 잘하는 선배이자 친한 형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영수 사원>** 팀원 간의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김성민 사원은 편안하고 잘 통하는 동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쩌고 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업무에 성실히 임하더군요. 신혼이니까 설거지도 밥도 열심히 해서 더 사랑받는 남편이 됐으면 해요. 아니, 이미 그런가?!

**정진교 사원>** 성실하면 단연 여영수 사원입니다. 이처럼 우직한 동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 쉬엄쉬엄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황상용 반장님! 장난칠 때는 다정한 큰형처럼 혼낼 때는 엄격한 선생님처럼 변신하는 모습이 짱입니다. 혼내실 때도 전혀 섭섭하지 않은 건 들키고 싶은 비밀이네요.

## 현장의 꽃은 바로 땀방울. 땀 흘려 일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윤석훈 사원>** 뜨거운 쇳물 옆에서 일하다 보면 단순하고 정직해져요. 옷이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머리 굴리지 않고 묵묵히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잔에 다시 일할 기운을 얻고요. 생각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게 되니까요.

**이성길 선임>** 세계적으로 합금철 경기가 좋지 않아 올 초에 몇몇 동료를 떠나보냈어요. 모두 힘들고 아팠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역할이 있죠. 우리가 쳐져 있는 건 떠난 동료들도 반기지 않을 거고요. 그들의 몫까지 일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안종순 주임>**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작년까지 후처리 작업에 모래를 사용하다가 슬래그로 변경해 연간 천여 만 원의 비용절감을 이뤄냈는데요. 기존의 작업방식을 새롭게 바꿔보려는 우리의 노력과 땀방울이 만든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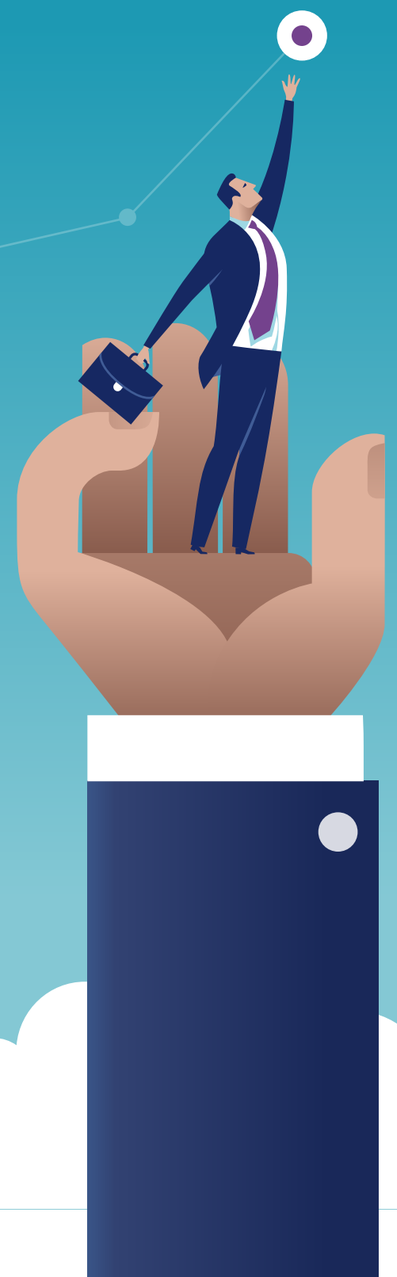
## 앞으로도 전기로D조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황상용 반장>** 지금처럼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일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기는 동료로 남을 거고요. 현장 밖에서도 든든한 형과 동생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는 팀이 될 겁니다.

#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의 진실

기업은 늘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기존의 성과를 계속 뛰어넘어야 하며, 언제나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각자의 탁월한 성과가 중요하다.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똑똑한 직원 스무 명을 데려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물으면 소프트웨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다시피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의 희소자원은 직원들의 능력이며, 이는 기업의 성과로 직결된다.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각별한 노력이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력이란 무엇인지,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성과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글_자유기고가 배나영



##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

1978년 중반, 미국의 거대기업 P&G의 본사에는 사회 초년생이 된 두 청년이 있었다. 청년들은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엄격한 회사 규정에 따라 메모를 옮겨 적는데 보냈다. 두 청년은 분명 똑똑했다.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한 사람은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P&G에 입사한 다른 수많은 신입사원들 역시 그들 못지않게 똑똑했다. 게다가 두 청년은 그다지 야심찬 계획도, 뚜렷한 목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50세가 되기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로 각각 취임했다. 두 사람은 바로 제프리 이멜트와 스티븐 발머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제프리 이멜트와 스티븐 발머 주변에도 20년, 3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 진정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 성공을 좌우하는 건 노력일까, 재능일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토록 높은 성과를 낼까? 대답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별로 흠잡을 데 없이 잘하기는 해도 탁월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에는 단순한 시간 투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의견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며, 아주 어릴 때 그 재능을 발견하는 엄청난 행운을 얻어 성공했다는 의견이다. 이 대답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 예를 들어 기업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 전략을 짜는 일이라던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일을 누군가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고 가정하면 재능은 타고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재능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대답도 틀렸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성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 노력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GE의 경영개발 센터를 이끌었던 미시간 경영대학원의 노엘 티치 교수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노력의 핵심을 설명했다. 각각 '안전 영역', '성장 영역', '공황 영역'이다. 성과의 향상은 '성장 영역'에 포함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계를 넘어선 기술과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안전 영역'에서 노력하면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한편 '공황 영역'의 노력은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사람들은 대개 특정한 활동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노력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 영역'에서 해오던 일을 반복하며, 이미 예전에 도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포천(FORTUNE)지의 편집장인 제프 콜빈은 천재들과 범인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은 매우 특별한 노력, 즉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말한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성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계된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부분을 예리하게 찾아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즉, '성장 영역'에서 필요한 적절한 노력을 선택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집중해서 반복해야 한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반복이다. 최고의 성과자들은 한도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흔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연습이다. 하지만 분명 나은 성과를 보장한다.

## 집중적으로 반복해야만 진정한 노력

시드니 올림픽 직전, 유도 선수 다니 료코의 인터뷰는 충격적이었다. 올림픽 1개월 전에 왼쪽 발목 힘줄에 손상을 입어서 연습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시합 직전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했다. 연습을 못했는데 불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7살 때부터 매일 연습해 왔으니까요." 그녀는 7살부터의 힘든 트레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공백이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일소했다. 그러나 7살 때부터 노력한다 하더라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마라톤 생방송을 보고 감동하여 마라톤을 시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라톤을 매일 계속 연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력은 계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노력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정신력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4~5시간 정도이다. 예를 들어 베를린 연구에서 최우수 집단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보통 하루 세 시간 반 정도를 두세 번으로 나누어 연습했다. 다른 많은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의 연습량 역시 최대 4~5시간을 넘지 않았다. 뛰어난 운동선수들도 연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밝혔다.

## 목표를 실현하는 최고의 수단, 노력

골드만 삭스의 전 최고 교육책임자이자 리더십 개발 분야 전문가인 스티브 커는 피드백 없이 노력하는 일을 무릎까지 내려오는 커튼 뒤에서 볼링공을 던지는 것에 비유했다. 어떤 기술이든 연습할 수 있지만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우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없고, 다음엔 성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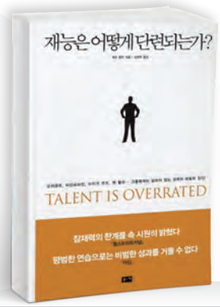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그리고 노력으로 성과를 얻는 일을 무엇보다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력하는 일'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며 부족한 성과를 자위하지 말자. 노력은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효과적인 노력,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력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만약 보상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야구선수 오 사다하루(왕정치)의 말이다. 진지한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 탁월한 성과를 올리도록 도와주는 **노력**에 관한 책들

BOOKS FOR YOU




###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제프 콜빈 지음, 김정희 역, 부키

나는 정말 노력하는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정말 노력했는가, 노력의 방향은 정확한가. 헬스 클럽에서 운동을 해 본 사람은 안다. 머릿속의 한계치를 뛰어 넘을 만큼 몰아세워야 진짜 운동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시간 운동기구를 순회하는 자기만족으로 끝나버린다. 정말 노력했다면 내가 아니라 남이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노력했지만 목표한 만큼 성취하지 못했다면 노력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저자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만이 개인과 조직의 탁월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 보자. 나는 무작정 노력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력의 기술> 야마구치 마유 지음, 이보라이프

도쿄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자는 노력의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천재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없지만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효율적으로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를 똑똑하게 성취해야 한다. 이 책은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도 명확하게 알려준다.

### <노력은 외롭지 않아> 마스다 에이지 지음, 박재현 역, 샘터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나 재능을 이길 수 없다면 다 쓸데없는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다. 마스다 에이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최후의 순간에 바로 그 자긍심이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말이다. 저자의 아들은 태어난 이래 한 번도 병원을 벗어난 적이 없고, 생의 90%를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가 아들의 호전을 위해 3년 10개월간 쏟았던 갖가지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일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때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 운명, 운, 재능의 문제다. 저자는 노력과 운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변화 가능한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유의지로서의 노력뿐이라고 설명한다.

# 부산대학교 전현욱 학생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정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 받아 열심히 학업에 정진 중인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전현욱이라고 합니다. 저와 귀 재단의 인연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아버지께서 작고하셨을 때, 저는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 아버지의 죽음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아버지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하시던 일을 그만 두시고, 누나는 겨우 대학생이라서 금전적인 수입이 전혀 없던 때, 마침 귀 재단에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공납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천원 한 장 귀하게 여겨야 하던 때라서 어머니께서는 그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밝게 웃으시는 것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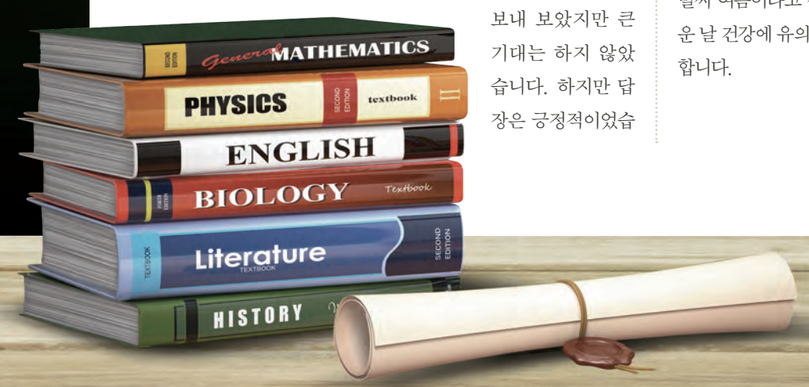
그렇게 귀 재단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마치고 어머니와 누나 역시 일자리를 구해 가정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는 대학교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줄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과는 액수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담당자분께 메일을 보내 보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발송하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필요 서류를 갖추어 귀 재단으로 발송하였고 약 한달 뒤 제 통장에는 전액 장학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귀 재단으로부터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여 받았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수학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귀 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필정장학재단 관계자 여러분, 저를 믿고 적극 도와 주신 여러분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지금까지 받아온 도움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어린시절부터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여름이라고 생각될 만한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전현욱 올림




# 부산대학교 총장 감사 편지

안녕하십니까? 필정장학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1946년 5월 시민들과 지역기업들의 사랑과 십시일반 후원으로 설립된 부산대학교가 올해 뜻깊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저희 대학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귀 재단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 부산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국립대학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각종 평가지표에서 국내 제 1의 국립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성과는 그 동안 저희를 묵묵히 응원해주신 귀 재단과 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 권위의 영국 QS세계대학 평가 국내 국립대 1위와 로스쿨 예비판사 합격 수 전국 1위 등 우수한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장학금 수혜율은 물론, 입학부터 졸업·취업까지 토털케어 시스템(PASS)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부 멘토링 활동, 해외봉사 및 체험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혁신에서도 부산대는 앞서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땀방울 흘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귀 재단의 장학재원 출연의 숭고한 뜻과 사회적 공헌이 더욱 빛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부산대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통일한국시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도시 부산의 명품 글로벌 부산대학교라는 꿈을 향해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귀 재단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학생들을 넉넉한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 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공헌 활동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산대학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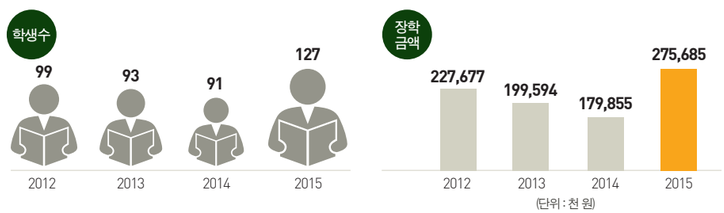
# 기회를 나누고 미래를 더하다
# 밝은 사회 구축과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필정장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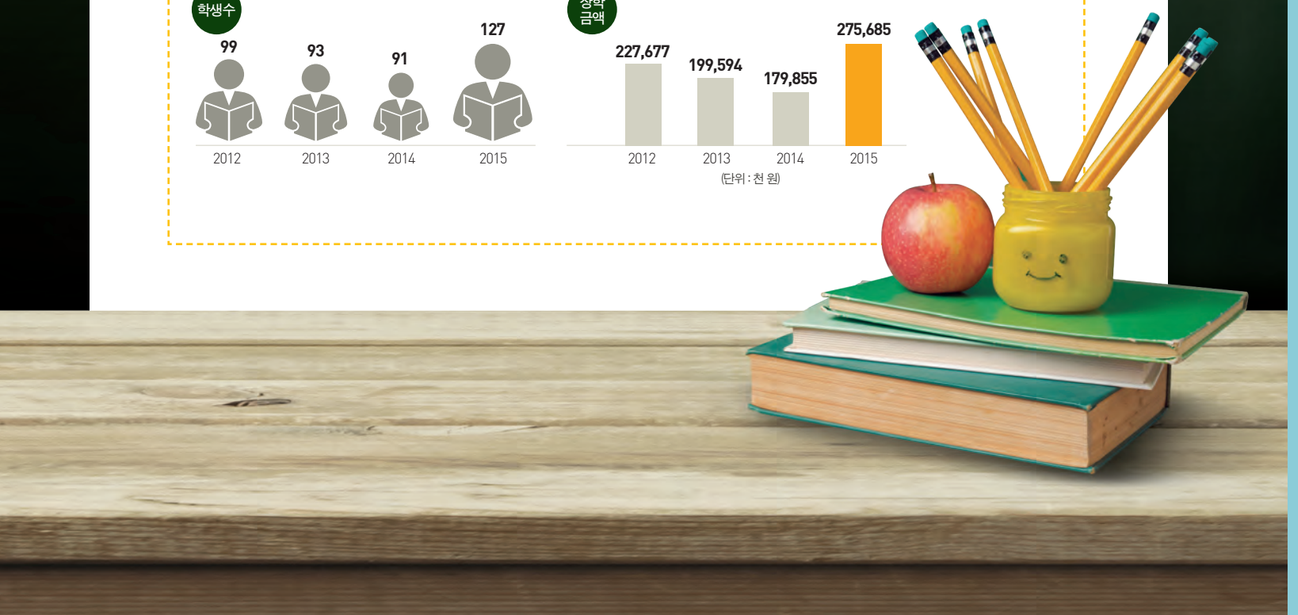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형식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SIMPAC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는 자체적인 기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 계열사의 자본을 모아 필정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불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사회 환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필정장학재단.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사회와 건강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 필정장학재단

필정장학재단(이사장 윤연수)은 2008년 최진식 회장 외 SIMPAC그룹 계열 3사(SIMPAC, SIMPAC메탈로이, SIMPAC ENG)의 공동기금 출연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기초로 삼고 있는 필정장학재단은 SIMPAC의 성장에 발맞춰 사회적 차원의 이윤 환원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과 더불어 보다 밝은 사회 구축을 위해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및 교수, 교사,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사회적 지원이 매년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필정장학재단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필정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 2016 SIMPAC STORY 여름호 특집

# SIMPAC데이터

2016년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SIMPAC인 여러분들은 새해에 세웠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삶을 위해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요즘에는 독서, 운동부터 게임, 피규어 수집,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SIMPAC데이터의 주제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SIMPAC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 보았습니다.

# 나를 발전시키는 힘, 자기계발

SIMPAC 1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더 나은 SIMPAC의 사내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설문기간 : 7월 18일 ~ 22일 • 대상 : SIMPAC그룹 전 계열사 • 참여인원 : 329명

* 자기계발 :
독서, 운동,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득 등 나를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

## 01 나는 지금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78.4%** 예

- **예 78.4%**
- 아니오 21.6%

## 02 어떤 자기계발을 하고 있나요?

**36.8%** 운동

- **핫한 여름을 위한 핫바디 만들기. 운동 36.8%**
- 해외여행도 이젠 두렵지 않다. 외국어 공부 20.4%
- 책은 마음의 일식, 중식, 양식! 독서 18.2%
-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거듭나다. 자격증 취득 준비 17.9%
- 기타 6.7%

## 03 내가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

**42.9%** 미래에 대한 준비

- **어느 순간 변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 42.9%**
- 무료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취미활동 34.0%
-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특기 만들기 15.8%
- 이유는 없다. 그냥 재밌으니까! 5.8%
- 기타 1.5%

## 04 매달 자기계발에 쓰이는 비용은 얼마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40.4%** 10만원 ~ 20만원

- **10만원 ~ 20만원 40.4%**
- 10만원 미만 29.8%
- 20만원 ~ 30만원 22.8%
- 30만원 이상 7.0%

## 05 자기계발과 관련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나요?

**64.4%** 인터넷을 통해서

- **"검색하면 다 나오지~" 인터넷을 통해서 64.4%**
- "친구 따라 강남간다."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17.3%
- "정보도 얻고 인맥도 쌓고!" 커뮤니티(동호회)를 통해서 11.9%
- "모든 것은 책 안에 있다." 관련 서적을 통해서 6.4%

## SIMPAC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자기계발을 소개해주세요~

- 외국여행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어학공부는 필수입니다.
- 시간 절약을 위한 인터넷 강의
- 미래를 위해 본인의 업무에 맞는 자격증 공부
-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날려 보세요~
- 체력은 곧 자산! 헬스와 조깅, 수영 등 운동이 최고입니다.
- 가족들과의 행복을 위해 육아를 통한 자기계발을 추천해요!

# 맥주잔 가득 넘치는 희망
# 떠오르는 내일을 향해 건배를 외치다
# 2016 호프데이

2016
SIMPAC메탈
호프데이

초여름 장마가 막 시작될 무렵의 6월 마지막 날, SIMPAC메탈의 분위기는 흐릿한 날씨와 정반대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혹시 모를 우천에 대비하기 위해 실내로 행사 준비를 진행하였지만 간만의 사내 행사에 들뜬 SIMPAC인들에게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당진에서 열리는 호프데이(가든파티)는 2012년 당진 공장을 세운 뒤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SIMPAC메탈의 행사이다. 상반기 업무에 전념한 직원들의 노고 치하와 하반기 활동에 대한 열의 다짐을 위한 자리로 임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사를 위해 복지사무동 1층에는 테이블과 무대장치가 준비되었다. 테이블에 놓인 갖가지 음식들은 군침을 돌게 했고 특히 호프데이에 빠질 수 없는 치킨의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한껏 자극했다. 최진식 회장님과 SIMPAC메탈 대표님의 말씀을 필두로 시작된 행사는 그 동안 직원들이 업무에 미뤄놓았던 회포를 마음껏 풀며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현장직과 사무직을 아울러 화합과 소회의 자리를 만드는 것. 매년 실시되는 호프데이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웃음과 수다의 향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통기타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다. 막내부터 회장님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대에서 어울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어깨마저 들썩이게 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SIMPAC메탈의 저력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 눈 내리는 겨울이 오기까지 SIMPAC메탈은 다시 한 번 힘차게 달릴 것이다. 모두가 하나되어 즐기던 호프데이를 기억하며.

## 2016 SIMPAC메탈로이 호프데이

지난 7월 1일 저녁, '한잔의 Hof에 희망(Hope)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Hof Day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초 이날 행사는 2공장 등나무 벤치 옆 야외에서 초여름 밤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진행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비 소식에 회사 식당으로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준비한 무대와 테이블보다 작아 다소 불편함도 있었지만 시원한 생맥주와 참여한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초반의 걱정과는 다르게 즐거운 한때가 되었다.

이날 참석한 최진식 회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상반기 소기의 성과로 희망을 보여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해치고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힘찬 건배사로 이날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어 진행된 초대가수의 라이브 공연은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때로는 은은하게 때로는 신명나게 어우러졌다. 한껏 신이 난 직원들이 하나 둘 무대에 오르고 평소 숨겨두었던 끼를 발휘하며 신명난 한때를 보냈다.

이날 갑작스럽게 내린 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닮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서로 도와가며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투명한 Hof잔에 가득 찬 시원한 맥주처럼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찬 이곳 SIMPAC메탈로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SIMPAC메탈로이 파이팅!!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두현 사원

# 단양

## 팔색조의 매력을 품은 도시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에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지만 동시에 꿀맛 같은 휴가를 선사하는 밀당의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이번 SIMPAC인 나들이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여름 휴가지로 육해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양을 추천합니다. 작지만 알찬 휴가 일정으로 단양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사진 / 글 :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두현 사원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두현 사원

## 이번 여름의 버킷리스트! 단양 패러글라이딩 타고 더위사냥 가요~

단양에 도착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패러글라이딩 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작지만 아름다운 단양의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더는 낙하산이 진화한 것으로 낙하산(Parachute)의 단순 낙하기능과 글라이더의 활공기능을 이용해 만든 레포츠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1960년대 중반 미국NASA에서 패러글라이더의 원형인 패러포일이란 이름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스카이다이빙용으로 사용되었으나, 1978년 프랑스의 한 산악인이 산 정상에서 편리하게 하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패러글라이딩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단양의 대표적인 레포츠입니다. 손을 뻗으면 구름에 닿을 것처럼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고, 발 아래는 옹기종기 모인 산과 강이 넘실거리며, 하늘을 가르는 짜릿한 기분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업체간의 가격차가 큰 편은 아니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용할 업체를 고른 다음 예약을 미리 마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날씨라면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공시간은 7~10분정도가 소요됩니다. 날아오르는 순간의 짜릿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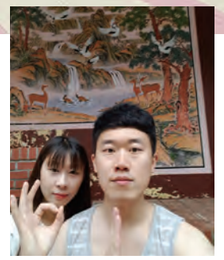


## 아름다운 도담삼봉을 더 가까이! 단양 도담상봉 모터보트

단양의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삼봉은 남한강 가운데에 있어 가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담삼봉을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도담삼봉 모터보트입니다. 도담삼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루터에서 탑승할 수 있는 모터보트는 최소 4명부터 최대 2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모터보트의 스릴과 함께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도담삼봉의 향기! 오전 9시부터 일몰 전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단양의 아름다운 도담삼봉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꼭 탑승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뻥 뚫려요!

## 금강산도 식후경! 단양구경시장 구경하고 가요~

레포츠를 원없이 즐기고 난 후에는 어김없이 출출함이 찾아왔습니다. 휴가지인 만큼 보통 식당의 밥보다 단양의 맛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단양 구경시장에 찾아갔습니다. 단양의 구경시장에는 맛있는 집이 많은지 이곳 저곳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곳곳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있고, 손님이 있어도 준비한 음식이 모두 팔려서 못 먹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양 구경시장의 대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마늘새우만두, 김치만두, 빨간어묵 그리고 떡도그는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메뉴들이 쉽게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맛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것은 아직도 입가에 군침을 돌게 하는 마늘새우만두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만두피안에 새우가 들어있고 통마늘도 들어있었습니다. 마늘의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새우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다소 낯선 떡도그는 떡 안에 치즈와 고구마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떡도그 위에 설탕과 각종 소스를 얹어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었습니다.



## 아시아 최대규모의 사찰, 구인사

시장 음식으로 주린 배를 양껏 채우고 난 후 단양의 또 다른 멋을 구경하고 싶다면 구인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구인사는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굽이굽이 휘어진 소복산의 산새를 따라서 지어진 절의 외관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사찰인 만큼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절의 규모입니다. 여러 개의 사찰 건물로 이루어진 구인사는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물사이를 지날 때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구인사만의 웅장한 기운을 느끼며 사찰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구인사는 부처님의 영험이 많고 신비스런 기도처로 이름나 있으며, 누구든지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더욱 유명한 절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저도 소원을 빌고 왔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SIMPAC맨의 고군분투 육아일기,

# 우리 아빠는 슈퍼맨

엄마 혼자 하는 독박육아는 가라. 불타오르는 부성애와 강인한 체력으로 딸바보 아들바보를 자청한 그들이 왔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그들을, 우리는 슈퍼맨이라 부르고 싶다.

##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남긴 글귀 하나,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명의 선생보다 낫다. 그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자 열정을 다하는 아빠들이 있다. 성연이 다연이 아빠 정동화 대리, 태은이 주하 아빠 권성안 대리, 채원이 예린이 아빠 임택인 대리. 이들도 처음부터 아빠는 아니었다.

**권성안 대리** ♥ 드라마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열 달 뒤 세상에 나온 아이가 장인어른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죠. 커가면서 점점 저를 닮기 시작했지만요. 아빠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정동화 대리** ♥ '똥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똥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시절이 있었네요. 계획과 함께 바로 첫째를 임신해서 신기한 마음으로 열심히 태교했어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태명도 짓고 개사까지 해서 노래도 부르고요. 집안에서 막내라 사촌 형들이 저를 똥이라고 불렀는데, 아내가 귀엽다고 태명을 똥이라고 지었죠. 우리 똥이를 직접 만나던 날, 제가 진짜 아빠가 됐음을 실감했어요.

**임택인 대리** ♥ 저는 살짝 울었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장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무덤덤했는데요. 출산 당일에 간호사가 뭔가를 안겨주더라고요. 막 세상에 나온 작고 약한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고 만감이 교차했죠. 아이도 아내도 나 하나만 보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동화 대리** ♥ 하나일 때와 둘일 때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첫째 때는 취미활동도 하고,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아내랑 영화도 봤거든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일상이 아이들 위주로 100% 바뀌었어요. 매운 음식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되고…, 두 아이 육아에만 초집중이죠.

**권성안 대리** ♥ 저는 동료들이 자꾸만 바보가 돼간다고 놀려요. 일하는 짬짬이 사진 보면서 혼자 웃는다고 딸바보래요.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딸 사진만 보면 힘이 나고 행복하니까, 자꾸 웃게 되나 봐요.

**임택인 대리** ♥ 아빠가 되니까 세상 모든 아이가 예쁘고 귀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아픈 아기를 보면 마음이 쓰리고 돕고 싶어져요.

## 아빠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

일주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친구들과의 여행과
소파와의 물아일체에 도전하겠다는 SIMPAC맨들. 그러면
서도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면,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주에서라도 달려오겠단다.
아이의 웃음 한 번에, 우리 아빠 최고라는 한마디에 아빠는 슈퍼맨도 될 수 있다.

**임택인 대리** ♥ 아내가 아이들의 책 담당이라면 저는 놀아주기 담당이에요. 주말에는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아이의 체력 고갈을 목표로 열정을 다해 놀아주죠. 출퇴근 시간이 워낙 길어서 평일에는 제가 먼저 방전돼 버리거든요.

**정동화 대리** ♥ 그냥 놀기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빠는 꼭 악당 역할을, 아이와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져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죽을 때도 아카데미 연기상 정도는 받겠다는 생각으로 온힘을 쏟아야 하고요.

**권성안 대리** ♥ 번개 파워에 쓰러질 준비도 해야죠.(웃음) 저는 아이랑 침대에서 뛰는 침대 팡팡을 자주 하는데요. 이게 한 시간만 뛰고 나면 몸이 저절로 누워지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져요.

**임택인 대리** ♥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슈퍼맨이 여기 있네요. 저는 아직 슈퍼맨이 되고 싶은 미생 아빠예요.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은 정말 멋진 영웅이었고,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 아이들도 슈퍼맨이 보고 싶을 텐데, 그게 아빠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초인적인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권성안 대리** ♥ 아이들은 아빠랑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걸 깨뜨리고 싶지가 않아요. 가능한 한 그 믿음을 지켜주려다 보니 조금씩 슈퍼맨이 돼가더라고요. 계단 두 개씩 오르기, 의자 번쩍 들기, 큰 창문 한 번에 열기, 물에 안 젖고 분수 사이 빨리 지나가기 이런 것만 해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정동화 대리** ♥ 화장실에서 아이가 넘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낚아채는 제 모습에 소름이 돋은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수영장에서 아이가 튜브 밑으로 쑥 빠졌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때 저는 분명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도, 0.1초 만에 아이를 건져 올렸다니까요.

**임택인 대리** ♥ 정말 공감 100%입니다. 저는 잠이 많아서 잘 깨지를 못하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 초인적인 힘으로 새벽이고 아침이고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열이 날 때는 두 시간마다 자동으로 눈이 떠지면서 물수건을 갈아줘요.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잘 때까지 안아주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아빠라는 자리가 참 대단하죠!

## 사랑하니까 아빠가 더 잘할게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아빠의 자리에 서고 보니 그 옛날 아버지의 마음이 읽힌다고.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지 깨닫고 있다.

**정동화 대리** ♥ 우리의 아버지들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누나와 저를 데리고 온갖 게임을 가르쳐주셨어요. 당신의 빈 시간을 온전히 자식을 위해 쓰신 거죠.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권성안 대리** ♥ 저한테는 무뚝뚝하지만 오랜 시간 가정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가 바로 슈퍼맨이에요. 저도 아버지같이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임택인 대리** ♥ 첫째가 한창 엄마를 찾는 시기인데, 가끔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마 아버지도 어머니만 찾는 제가 섭섭하셨겠죠?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그만 외로운 존재가 돼버린 아버지처럼, 저도 그럴까 봐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정동화 대리** ♥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놓쳤던 걸 잘 기억해두면 괜찮을 거예요. 아이와 어떻게 놀지 놀이방법도 찾고,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대해 공부도 하고.

**권성안 대리** ♥ 국가대표급 체력을 지닌 아이에게 밀리지 않도록 울트라급 체력도 키워야죠.

**임택인 대리** ♥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 역할이 시작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임신 중에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면, 아기가 스트레스도 줄고 아토피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대요.

**권성안 대리** ♥ 이런 아빠의 고민과 노력으로 두 딸이 흥이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정동화 대리** ♥ 저는 아이들이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줬으면 해요. 자존감이 있으면 어느 집단에서든 인정받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임택인 대리** ♥ 흔한 말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겉모습에 혹하지 않고, 상대의 인성과 마음씨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이요. 그러려면 우리 아빠들이 더 잘해야겠죠?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 환영합니다

SIMPAC의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게 된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회사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인사로 환영해 주세요.

**이름 : 김나영 사원**

**소속 : (주)SIMPAC 국내영업팀(부산영업소)**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안녕하십니까! ㈜SIMPAC 국내영업팀 소속 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영 사원입니다. 지방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저로써는 임직원분들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도 적을뿐더러,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SIMPAC STORY 여름호에 저의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부산영업소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영업관리 및 회계업무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주를 가져오는 직무는 아니지만 영업사원들의 업무진행을 위해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저의 첫 직장생활이라 제게 주어진 업무들이 처음엔 두렵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자신의 크고 작은 실수담을 들려주며 위로해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SIMPAC에 입사한 올해 2016년은 SIMPAC이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이 되는 날까지 SIMPAC의 일원으로써, SIMPAC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직장생활에서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이 사보에 쓴 글을 읽어보며 초심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름 : 이지호 사원**

**소속 : (주)SIMPAC 해외영업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안녕하십니까! 인사 드리겠습니다! 해외영업팀 신입사원 이지호입니다! 먼저, SIMPAC의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입사한 뒤,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선배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회사에 잘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SIMPAC에 꼭 필요한 인원이 되기 위해, 저는 다음의 두 가지를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사' '잘' 하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기분 좋은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힘찬 인사로 선배님들과 기분 좋은 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성실'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부위침(磨斧爲鍼)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성실함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문과출신'으로 프레스기계를 이해하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마부위침'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 박정환 사원**

**소속 : (주)SIMPAC 생산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한 생산팀 박정환 사원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제가 해외동포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사 최선을 다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조직의 성과에 이바지 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 김학민 사원**

**소속 : (주)SIMPAC 해외영업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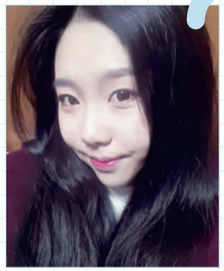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주)SIMPAC 해외영업팀에 입사하게 된 김학민입니다. 면접을 본 것이 마치 어제일 같은데 입사한 지 어느덧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신입으로서 SIMPAC에 어울리는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영업팀의 일원으로서 어느 지역을 담당하든 그 지역에 맞는 전문가가 되어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배우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해외영업팀 김학민이 되겠습니다.

**이름 : 맹은채 사원**

**소속 : (주)SIMPAC 품질경영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안녕하세요. 1월 18일부로 SIMPAC 가족이 된 (주)SIMPAC 품질경영팀 맹은채라고 합니다. 학교라는 배움터를 벗어나 회사에 와서 실무를 접해보니 그저 어린 저에겐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팀원분들, 선배님들 덕분에 차차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IMPAC의 막내로서 한 발 먼저 행동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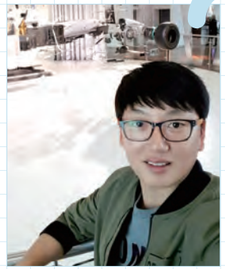


**이름 : 차유리 사원**

**소속 : (주)SIMPAC 생산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안녕하십니까. (주)SIMPAC 1월 입사자 생산팀 (자칭 요정)차유리입니다.
호호 입김 불며 빨간 교복을 입고 면접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SIMPAC과 가족이 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사한 첫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는 팀장님의 말씀, 걸려오는 전화가 무서워 바들바들 떨었던 불과 몇 개월 전의 모습. 현재의 제 모습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게 전화를 받고, 생산팀의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반갑게 맞아주시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겨주는 팀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어수룩하지만, 항상 배움의 자세를 지니고 더더욱 발전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이종민 대리**

**소속 : SIMPAC산기 / 기술1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기술1팀 이종민 대리 입니다. 유압 가류기와는 다른 타이어 성형설비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고 왔지만, SIMPAC산기의 주 목표가 최고의 유압 가류기 제작 업체 뿐만 아니라 최고의 타이어 관련 제조 설비 제작 업체 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유압가류기에 있어서 만큼은 최고의 전문가 이시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걷는 것 보다는 뛰어 다니면서, 흘린 땀만큼 성장해간다는 마음가짐과 각오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강소정 사원**

**소속 : SIMPAC인더스트리 해외영업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SIMPAC의 새로운 얼굴이 아닌, SIMPAC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름 : 원운재 대리**

**소속 :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회사와 같이 발전하는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름 : 최무성 사원**

**소속 : SIMPAC인더스트리 전기생산**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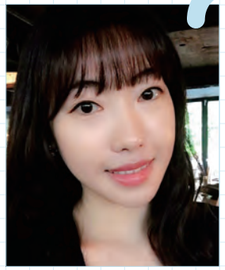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받는 최고의 전기쟁이가 되겠습니다!

**이름 : 김다희 사원**

**소속 :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세계 최고의 SIMPAC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에서 처음 입사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름 : 김예원 사원**

**소속 :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름 : 김희주 사원**

**소속 : SIMPAC메탈로이 합금철영업팀**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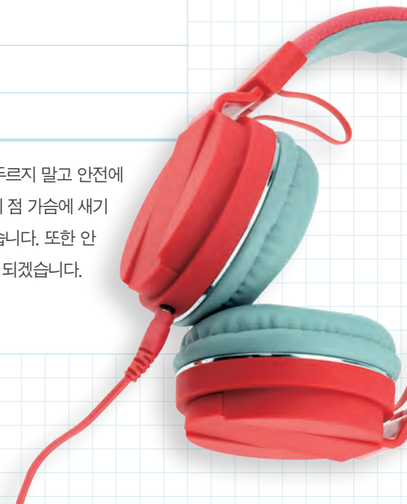
많이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 구민규 사원**

**소속 :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고무반**

**회사생활의 포부가 담긴 한 마디 :**

SIMPAC메탈로이에 입사해 선배님들께 들었던 "일은 다시 하면 된다.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해라."와 아침마다 다 함께 외치는 '혁신구호'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 점 가슴에 새기고 항상 최고를 향해 노력하고 나아가며 혁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을 체질화 하여 나와 동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SIMPAC메탈로이 파이팅!!!



# "至誠이면 感天이라 -
## 스스로 노력한다면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에게"

### 영화 "마션 (MARTIAN)"

글 : (주)SIMPAC 경영지원팀 김선일 사원

20세기 중반 구 소련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공위성과 탐사선들이 우주로 향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우주는 알려진 것 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은 미지의 공간이다. 그런데 무인도도 아니고 미지의 세계인 화성에서 혼자 상륙해 살아가야 한다고?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정일 것이다.

이번에 SIMPAC인들에게 소개할 영화인 마션(Martian)은 화성에서 조난당한 화성 탐사대원 마크 와트니의 좌충우돌 생존기를 다룬 SF영화다. 그는 화성탐사대의 식물학자 겸 기계공학자로, 여러모로 지극히 평범한 엔지니어였다. 사고가 일어나 화성에 홀로 남겨지기 전 까지는 말이다. 탐사 도중 불의의 폭풍으로 긴급 철수하는 도중에 미처 일행에 합류하지 못한 그는 우주 미아로 남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 삶의 의지가 바로 꺾이고 말았을 터, 허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거듭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우주의 척박함과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이라는 불가항력은 그의 생존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고작 31일간의 식량 뿐. 극적으로 지구에 자신의 생존사실을 알리고 NASA로부터 구조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4년이라는 물리적인 제한이 따르는 절망적인 상황. 여기에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도 없기에 그야말로 그는 "우주판 로빈슨 크루소"인 셈이다.
이쯤되면 대게 패닉상태에 빠질 법한 상황이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화성과의 일전을 벌이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다.
"포기해 버리고 죽을 것이 아니라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살 수가 있다. 무작정 시작하는 거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한다.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보면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는 실제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안전한 거주공간, 화성대기에서 산소 분리하기, 태양 방사선의 차단, 식수문제의 해결,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물 경작,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을 냉철

**"어느 날 갑자기
화성(Mars)에 나 홀로 상륙해
생존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히 분석하고, 자신이 가진 과학적 지식을 총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선다.
가진 것은 열악하며, 척박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화성의 환경에서도 그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이러한 과업들을 묵묵히 실현하고 생존을 이어나간다. 또 과거 화성탐사선 "패스파인더"가 묻힌 좌표를 찾아내 극적으로 지구와 교신,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성공한다.
물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나가지만은 않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거주 공간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애써 경작한 감자밭이 황폐화되기도 하는가 하면 정상 가동되리라고 믿었던 기계들도 종종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긴축해 운용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
마크의 끈질긴 노력 뿐 아니라 함께 탐사에 나섰던 동료들과 NASA 스텝들의 의리와 동료애 역시 마크의 생존 의지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했던가. 이러한 과정은 마크의 조국은 물론 이웃국가까지 감동시켰고, 모두의 노력 끝에 마침내 마크는 지구에 무사귀환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삶에 대한 그의 처절한 노력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미션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깊이 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아마도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서 겪는 고초와 이를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네가 살고 있는 세상사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극 중 마크는 말한다. "화성에서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곧 여러분들도 겪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세상-가정, 회사, 경제상황, 정치환경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해 때로는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난관을 극복한 마크의 스토리가 냉엄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둘째, 노력의 역사를 거치며 업계 1위를 석권한 SIMPAC인들에게 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수 십년 전부터 SIMPAC에 몸담은 이들은 과연 현재의 그룹의 위용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을까? 한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화성에서 마크 와트니가 겪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국내외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환위기 등에 봉착하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 악재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 도전정신 등으로 무장하며 이를 이겨내었고 마침내 지금의 위치까지 일어설 수 있었다. 마치 화성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귀환한 마크 와트니처럼 말이다. 이는 SIMPAC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요소였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종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외부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물론 이를 이겨내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일 것이며, 그리 녹록치 않겠지만,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정성 어린 끈질긴 노력으로 일관한다면 마션의 주인공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주인공은 영화 말미에 다음과 같은 대사를 남긴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선택은 둘 중 하나이지.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뭔가를 실행에 옮기든지."**
SIMPAC인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 진정한 노력을 동반하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에너지를 얻어가길 바란다.

* SIMPAC인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폴더'는 여러분이 직접 영화, 책,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SIMPAC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개인폴더' 코너에 참여한 직원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편지 왔습니다

## SIMPAC인더스트리 원운재 사우가 전하는 편지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차익환 차장님께

㈜SIMPAC인더스트리에 5월에 입사하여 어느덧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2개월이란 기간 동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팀원분들도 물론 모두 고맙지만 특히 차익환 차장님과 정동화 대리를 본 순간 미생이란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열정적인 미생의 오차장 같은 차익환 차장님과 그 밑에서 잘 따라주는 정동화 대리. 그들을 보면서 저도 팀에 잘 융화되어 좋은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과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좋은 동료와 그 동료를 잘 이끌 수 있는 상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으로 이직한 건 저에게 커다란 행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많이 배우고 같이 으쌰 으쌰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차장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식사할 때나 술을 마실 때면 좋은 직장 상사로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며 스스럼없이 대해주십니다. 특히 밖에서는 업무의 연장보다는 친한 형님처럼 대해주시면서 편하게 해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헤어질 때 치킨 한 마리 포장시켜 줘서 아내와 아이에서 먹이라는 차익환 차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항상 고맙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차장님의 모습을 잘 따라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원운재 드림

차장님의
남자다움을 한껏
높여주는 향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 SIMPAC홀딩스 이의진 사우가 전하는 편지

SIMPAC HDS 전략구매실 이수연 선배님께

SIMPAC에 입사하여 이수연 선배와 사수, 부사수로 함께 호흡을 맞춘 지 어느새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회사에선 사수로, 사회생활의 선배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인지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수연 선배의 업무방식과 회사생활을 제 모토로 삼으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한 살 차이의 편한 언니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실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진지하셨습니다.

자재 마감이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쉽게 넘길 수 있는 일 하나에도 꼼꼼히 따져보며 알려주셨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아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찾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도 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찾아보라고 했던 선배가 가끔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업무량으로 업무가 밀릴 때마다 업무를 미루지 말라며 엄격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을 내면서도 제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곤 합니다. 한 번은 사외 OJT를 다녀와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저를 위해 선배는 마다하지 않고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도와주셨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로써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탓에 힘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알려주거나, 가끔은 따끔한 충고 때로는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매번 진심으로 대해주신 덕분에 힘든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항상 선배의 도움을 받고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선배에게 받은 조언과 충고를 발판 삼아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 훗날 제 후임이 들어온다면 선배처럼 강하고 든든한 선배로 비춰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선배가 제 사수라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리며 사이좋은 선후배, 편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도록 해요 !

그 동안 이수연 선배에게 받은 관심과 진심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IMPAC HDS 전략구매실 이의진 드림

땀과 함께
더위도 날리는
산뜻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입니다.

##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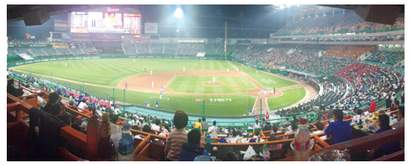
**from SIMPAC메탈 생산지원팀 이준기 대리**

요즘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로 받아 읽은 책으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고로 인간은 변할 수 있고 세계는 단순하며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입니다. 힐링이 필요하시거나 심적 여유가 필요하신 직원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 (지우의 예쁜 성장을 기원하며) 서대리 축하해~

**from SIMPAC홀딩스 ENG부문 박기원 대리**

7월 9일 토요일 오후3시 서상철 대리의 딸 지우의 돌잔치. 지우 태어나서 축하해준지 얼마 안 된거 같은데.. 벌써 첫 생일!! 항상 웃는 얼굴의 서상철 대리를 닮아 지우도 웃는게 이쁘네~^^ 기쁜날 추억이 되라고 좋은 사진기를 가져와 가족의 멋진 사진이 나왔어~ 상철씨~! 우리 수민이 돌잔치가 성큼성큼 나가오고 있어서 이러는거 아니야.. 지우가 판사봉을 잡아서 이러는 것도 아니야. 지우 지금처럼 이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



## 우리 팀을 성장하게 만드는 야구장 나들이

**from SIMPAC경영지원팀 김선일 사원**

여름날씨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6월 초, (주)SIMPAC 경영지원팀의 인사총무 Part(권순영 과장, 지영훈 사원, 김선일 사원)와 재무회계팀(권성안 대리, 장원서 대리)이 일과 후 프로야구 직관을 갔습니다. 간만에 문학경기장에서 신나게 응원하며 업무 스트레스도 날리고 시원한 맥주로 여름밤 더위를 식혔습니다. 팀원이 한 자리에 어울려 단합력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아이들

**from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철 없는 사춘기 시절, '아버지처럼 안 살꺼에요..' 라며 상처를 줘도 묵묵히 기다려주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갑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 '과연,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이 본 받을 수 있는 바른 어른이 되자 라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호 주제는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_____" 입니다.



# Congratulations!

탄생을 축하합니다

SIMPAC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강렬한 여름 햇살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축하의 말씀 전달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 출생
SIMPAC메탈 생산팀
전기로 B조 최진혁 조장
자녀 최영준

2016년 6월 2일 출생
SIMPAC메탈 생산팀
전기로 B조 이정훈 사원
자녀 이가을

2016년 6월 15일 출생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임택인 대리
자녀 임예린